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일년의 여정을 동행하시고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하 중고등부실에서 올해 하반기 새교우 환영회가 있습니다.

12월 31일(수) 밤 11시부터 송구영신예배를 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지난 당회에서 새롭게 임원으로 선출된 이들(집사, 권사)은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일시: 12월 29일-30일, 오후 6시 30분 장소: 정동제일교회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경회가 1월 5일부터 8일까지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로 1,2부 연합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푸른어린이도서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사무실, 삶의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새로운 몸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856 박정숙 (청년부)

2857 강미선 (청년부)

2858 한대훈 (5남선교회)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당목사실)

www.chungpa.or.kr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고통의 가시밭길과 눈물의 골짜기도 있었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새로운 길을 보게 하셨고 기도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청과 믿음의 공동체가 설립 100주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생명과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지만 쉽게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서로의 기댈 언덕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누군가를 위해 마음 한 자리 쉽게 내어주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한완식 임정자 강인식 김정숙 김용진 박효선
이광용 형인순 이정규 이인섭 이한림 김명희 임승동 백혜숙 정완수
김재광 전월수 최종원 왕성환 강순배 권미숙 오재환 양재성 장원호
박성희

월정헌금:

김남중 오복순 김현영 정원석 박옥순 하정석 이명희 하현철 최성애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김순자 박찬정 최동운

감사헌금:

이건식 신영신 임승동 백혜숙 홍순구 안홍숙 단 비 김정섭 김준호
곽경선 이인섭 무명6

생일헌금:

김기석 곽혜자 서정순 김주희

녹색꿈헌금:

제5여선교회 임영선 (계 : 8,451,000원)

	장혜숙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임정자	임정자		
	문영혜	박경선		
	안정숙	박애순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윤		
	최숙화	권미정	심	심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백혜숙	정옥영		
	송양진	유경순		
	이영란	박미영		
	박혜경	최영혜		

이탈한 자가 문득

우리는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돌아왔느냐
 자기의 고리를 물고 뱅뱅 돌았을 뿐이다
 대낮보다 찬란한 태양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한다
 태양보다 냉철한 못별들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므로
 가는 곳만 가고 아는 것만 알 뿐이다
 집도 절도 죽도 밥도
 다 떨어져 빈 몸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보았다
 단 한 번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두 번 다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지라도
 캄캄한 하늘에 획을 긋는 별
 그 똥
 째지만
 그래도 획을 그을 수 있는
 포기한 자 그래서 이탈한 자가 문득 자유롭다는 것을

- 김중식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그 위에 사랑을 더하며 사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 함께 하자고 초대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한 몸임을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한 해도 동행이 되어주신 주님, 새해에도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잡기 / 김기석 목사	수요집회는 쉽니다
기도 : 이종현 집사	11시 송구영신 예배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장영숙 전도사	하현철 권사

12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훈동 정원석 박혜경 유경순 김현영
	헌금위원	윤석철 문영혜(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당신을 만나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은 혼자 걷고 싶어.”

아침에 닐스크리스티안에게 말했다. 그것도 냉정할 정도로 단호한 어투로. 잠에서 덜 깬 데다 일사병에서 겨우 회복된 그에게! 쪽지를 남기고 떠나려 했는데 침대에 쪽지를 놓는 순간, 그가 깨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했다. 저녁에 만날 숙소를 정하고 혼자 돌아서 나오는데 발이 무겁다. 나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걸까? 같이 좀 걸으면 어때서 굳이 그런 말을 해야만 했던 걸까. 하지만 벌써 며칠째 하루의 대부분을 그와 같이 걸어왔다. 길 위에서 걷는 내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걷는다는 것, 내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불편한 마음을 끌고 걷는 길. 어둡던 마음 어느새 사라지고 신선한 새벽 공기의 흐름을 느끼며 침묵 속에서 혼자 걷는 행복이 조금씩 차 오른다. 이른 새벽, 아직 세상의 살아 있는 것들이 깨어나기 전인 이 아침의 고요가 내게는 축복 같은 시간이다. 그 축복은 침묵 속에서 완전해지기에 때로는 혼자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북미 인디언들은 “신과의 만남이 이렇듯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모든 언어가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하고, 진리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길도 좋다 하지만 때로는 말없이 오직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걷는 것, 그게 순례의 형태로도 더 어울리지 않을까.

다섯 시에 일어나 숙소를 나선다. 시내를 빠져나오니 길은 곧게 뻗은 외줄기. 도로를 5미터쯤 옆에 두고 걷는 길. 어둠 속에 혼자 걸을 땀 늘 움츠러든다. 두려움과 공포를 눌러가며 걷는 길. 끝내는 아무 일 없이 부드러운 첫 햇살과 대지의 조용한 만남을 지켜보게 될 것을 알면서도, 왜 늘 어둠이 두려운 걸까.

여덟 시에 베르시아노스Bercianos 도착하기까지 단 한 명의 순례자도 볼 수 없어 노래를 부르며 걸었다.

“그리워도 뒤돌아보지 말자. 작업장 언덕길에 핀 꽃다지. 나 오늘밤 캄캄한 창살 안에 몸 뒤척일 힘조차 없어라. 진정 그리움이 무언지 사랑이 무언지 알 수 없어도 쾅한 눈 올려다본 흐린 천장에 흔들려 다시 피는 언덕길 꽃다지.”

가도가도 끝없는 밀밭뿐. 이제 밀밭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않는다. 그저 빨리 이 밀밭을 벗어나고 싶을 뿐.

문득 성 프랜시스 이야기 생각난다. 성 프랜시스가 겨울에 편도나무를 들여다보며 하느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자. 갑자기 그 나무에 꽃이 만발했다고 한다. 나도 사람들이 산티아고에 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할 때, 내 얼굴이 미소로 덮이고 내가 환한 꽃으로 피어나기를 꿈꾸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눈앞에 펼쳐진 밀밭이 일제히 꽃을 피워낸 다해도 감동할 여유조차 없이 그저 걷고만 있을 뿐이다. 나만 홀로 어떤 낮은 시간, 낮은 공간에 떨어져 있다는 격절(擊節)의 느낌 속에서.

세 시. 마침내 만시야 도착. 새벽 다섯 시 반부터 걸었는데 오후 세 시에야 목적지에 닿았다. 38킬로미터를 걸었으니 어제 16킬로미터 걷고 온 대가를 오늘 톡톡히 치른 셈이다. 알베르케에 들어서니 낮익은 얼굴들이 너무도 반갑게 나를 맞아준다. 닐스크리스티안과 독일인 청년 토마스가 제 무릎에 내 발을 올려놓고 정성껏 마사지를 해준다.

“아, 행복한걸.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니.” “배 안고파? 나한테 야채와 파스타 재료가 있는데 뭘 좀 만들어줄까?” 덴마크 소녀 크리스티나가 나를 위해 야채를 듬뿍 넣은 파스타를 요리해줬다.

생각해보니 이 길을 걷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온다. 혼자 걷는 아시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길에서 나는 관심의 대상이 되곤 한다.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며칠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다와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함께 걷고 있다.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너와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해.”

“네 웃음이 나를 행복하게 해.”

“너를 만나서 참 기뻐.”

“너를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지 몰라.”

카를로스와 주느비이베, 닐스키르스티안, 그리고 며칠째 같은 숙소에서 만나는 프랑스인 아줌마 마호진느, 이탈리아인 아줌마 나디아, 나를 볼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꼭 껴안아주고 내 뺨에 뜨거운 키스를 퍼붓는 아줌마들. 이 길의 끝에 서면 그리운 곳으로 돌아가면 나도 말하리라.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 김남희 『걷기 여행2』 중에서